



# 성도의 빛

1990년 6월호



## 일 반

3

대관장단 메시지  
항상 기도하라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8

물몬경 일천 권  
토마스 엠 해들리

10

차고 넘침에 감사함  
랜디 스펠링

14

저는 자는 척 했습니다  
릴리 스와니건

16

결혼 생활에서의 불의한 지배력  
에이치 버크 피터슨 장로

26

질 의 응답  
협력하여 일함  
쉐리 존슨

29

남과 다른 삶  
리카르도 바티스타

30

의설물과 맞서 싸움  
알 게리 샤피로

33

먼 곳에서 갖는 파티  
재닌 헨슨

46

벽장 선반 위의 책  
클리포드 이 코울맨

## 청소년란

24

이런, ...!  
콜린 레이튼

34

“모든 것이 안전해”  
자넷 토마스

40

다음 15분  
로버트 엘 심슨 장로

43

선물  
안토니오 코올리

## 정기특별기사

1

애독자 편지

25

방문 교육 메시지  
성약을 지킴으로써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44

전세계 성도들의 소식

65

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십시오

더글러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

66

교회 및 지역 소식

## 어린이란

50

물몬경 이야기  
배를 만들

52

탐 험  
개척자 놀이  
수잔 데이비스

54

주님의 깨끗한 집  
테비 모어

56

함께 나누는 시간  
성스러운 지침  
로럴 롤핑

58

성신  
앤 램턴과 제키 오웬

60

라일락 향기  
다나 카트라이트

64

심심 풀이  
정육면체가 모두 몇개일까요?  
엘리자벳 위버 윈스티드  
재미있는 회오리 바람개비  
푸른 호수로 가는 길  
로베르타 엘 페어올



푸에르토리코인 선교사

저는 삼년 전에 카리브해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섬에서 침례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텍사스 산 안토니오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미국에서 라틴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보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 사업은 모든 회원들이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제 생의 2년 간을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훌륭한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호세 토마스 리온 장로  
텍사스 산 안토니오 선교부

성전 축복

제 생애에서 가장 훌륭한 경험들 중에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성전에 참석하는 것과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서 드리는 회생이 포함됩니다. 한번은 성전으로 가는 버스 시간을 잘 못 알아서 교회 회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버스가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다음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총 400km를 서서 가야했지만 우리는 신권을 통해서 강건해지도록 축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전에 도착해서 매우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성전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제가 성전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갈 때 더 높은 영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프란치스코 제이 레이스 로드리게즈  
멕시코 와하카

선교사의 도구

저는 리아호나(포르투갈어)가 복음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아호나를 사랑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총관리 역원들과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해 줍니다.

저는 이 잡지 속에 들어 있는 경험들이 주께서 구원의 계획을 통해 자녀들에게 보여 주시는 사랑을 충분히 반영해 주므로 리아호나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 또한 선교 사업에 꼭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타니아 아파레시다 모야노  
브라질 상파울로

소망

저의 아버지 후안 카스트로 두크는 칠레 오소노 선교부장입니다. 어느 맑고 따뜻한 토요일 오후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침례식에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침례식이 행해질 호수로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비에 젖었고 흙탕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침례식 동안에도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침례식이 끝나자 바람이 약해지며 비도 그치기 시작했으며 호수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은 아직도 검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지만 무지개는 찬란히 빛났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침례를 받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기적을 목격한 후 곳은 날씨가 다른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염려한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과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압니다.

칼롤리나 카스트로  
칠레 오소노

아름다운 나라

멕시코와 같은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 훌륭한 이유입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자유의지를 행사할 기회와 하나님을 경배할 권리와 아름다운 성전은 "저에게 아름다운 나라와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사라 메라 가르시아  
멕시코 이달고

물론경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물론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물론경의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 지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 주는 데 있습니다.

세르지오 사무엘 자바레타  
멕시코 레포마

1990년 6월호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핀란드어 및 프랑스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티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판장단: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본, 엘름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벨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런, 리처드 지 스크트  
고문: 렉스 디 피네가,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프란시스 엠 기번스, 제프리 알 홀런드

봉 권: 제290권, 제27권, 제6호  
등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90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홍 무 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영 인쇄 주식회사 사 용  
© 1990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료는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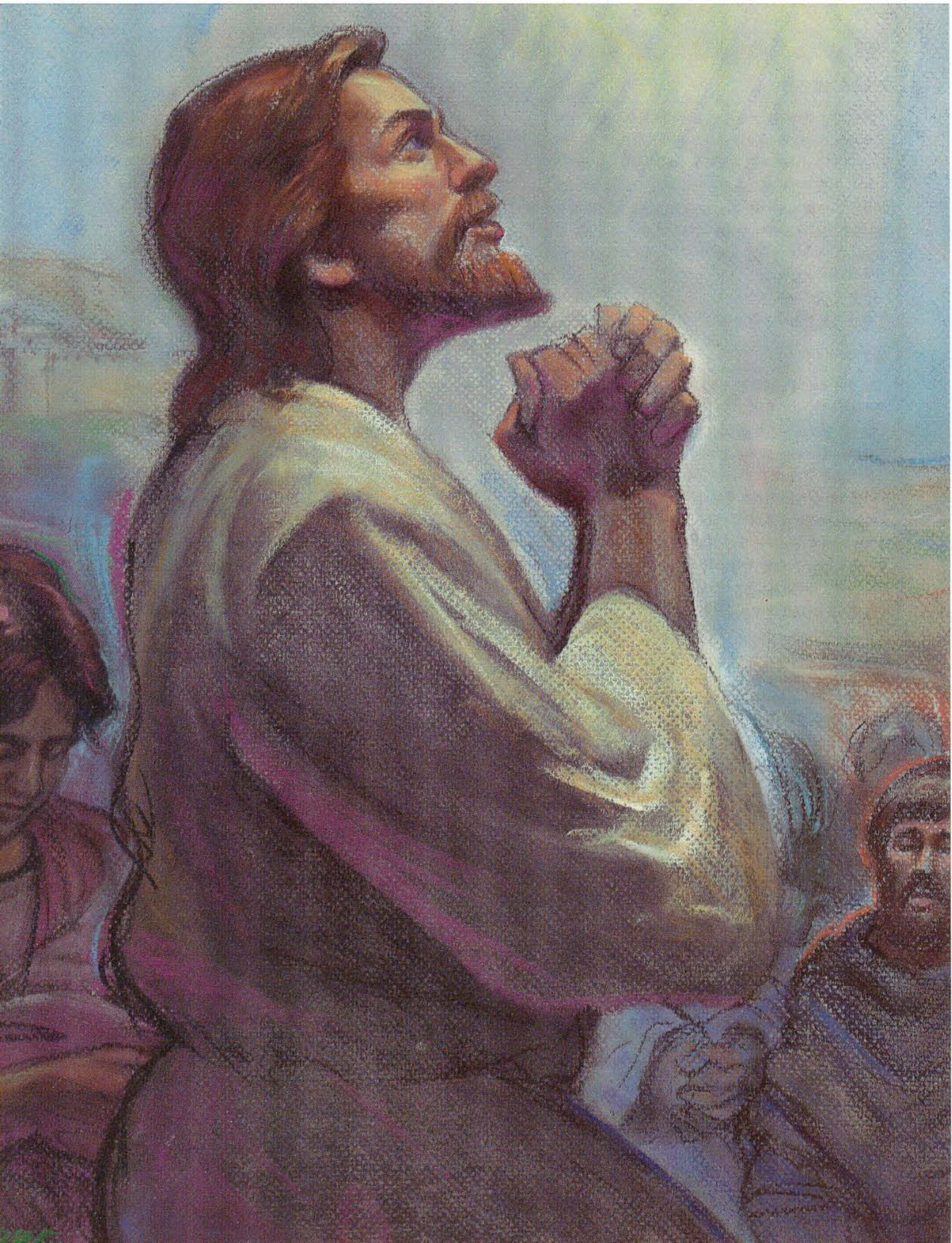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0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PBMA9006KO  
Printed in Korea 6/90







# 항상 기도하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항

상 기도하라. 그리하면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부어 주리라.

네가 받을 복이 크리니, 참으로 네가 얻게 되는 세상의 보화보다  
많고”(교성 19 : 38)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마태복음 6 : 9~13)

예수님은 또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누가복음 18 : 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태복음 26 : 41)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예수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사악한 자가 너희를 정복하여

너희 처소에서 너희를 옮겨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교성 93 : 49)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면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부어 주리라. 네가 받을 복이 크리니, 참으로 네가 얻게 되는 세상의 보화보다... 많으리라.”(교성 19 : 38)



구세주께서는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교성 59 : 21)

서반구에 있던 니파이 백성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던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행여 마귀가 너희를 꾀어 사로잡을까 염려함이라.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사탄이 너희를 사로잡아 밀같이 채로 치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라. “너희가 반드시 주시리라 믿으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보라 너희에게 주시리라.”(니파이삼서 18 : 15, 18~20)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좀더 가까이 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1. 우리는 자주 기도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적어도 두 세번은, 경전에 나와 있는대로 “아침 낮밤으로”(엘마서 34 : 21) 하나님 아버지와 단 둘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니파이서서 32 : 9; 교성 88 : 126 참조)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엘마서 34 : 27 참조)

2. 명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골방이나, 은밀한 장소나 광야에서”(엘마서 34 : 26) 기도하라는 충고를 받았습니. 이것은 곧 은밀한 중에 기도함으로써 정신이 산만해짐을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니파이삼서 13 : 5~6 참조)

3. 기도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기도하고자 하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성 112 : 10 참조) 우리는 용서와 자비를 간구해야 합니다. (엘마서 34 : 17~18 참조) 우리가 나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을 모두 용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 : 25 참조) 뿐만 아니라 경전에서는 우리가 “궁핍하고 험벗은 자를 외면하며, 병들어 신음하는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 (우리의) 소유를 나누지 아니하면”(엘마서 34 : 28) 우리의 기도가 헛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4. 기도는 의미있고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친구가 우리에게 매일 똑같은 말을 하고, 대화를 귀찮게 생각하고, 말이 끝날 사이도 없이 텔레비전을 돌리거나 우리를 잊어 버린다면, 누구든지 감정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언제나 당신이나 해 주세요 등의 평상적인 어투가 아니라 아버지나 주옵소서 등과 같은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하신 분에게 더욱 존경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적과 악마의 힘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의 복지와 우리 주위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활동에 관하여 주님과 상의해야 하며(엘마서 37 : 36~37 참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교성 59 : 21 참조) 또한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배은망덕한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죄에 속합니다.

주님은 현대에 계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이 저에게 더하여 지리니 참으로 백배 이상 더해지리라.”(교성 78 : 19)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며, 우리를 손상케 할 것을 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 : 3 참조)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점을 감당해낼 힘을 간구해야 합니다. (엘마서 37 : 31~33 참조) 교회의 대관장과 총관리 역원, 스테이크 부장, 감독, 정원회 회장, 가정 복음 교사, 가족 및 사회 지도자들의 영감과 안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제안해 드릴 수 있으나, 우리는 성신의 도움으로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 : 26~7 참조)

5. 기도를 통해 간구한 후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을 동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실한 기도란 우리가 어떤 덕이나 축복을 간구할 때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해 그리고 덕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뜻합니다.”

제 일생을 통해 기도에 의지하라는 권고는 제가 이제까지 받아온 어떤 충고보다도 주옥 같이 귀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닻이요, 변함없는 힘의 원천이요, 거룩한 것에 대한 내 지식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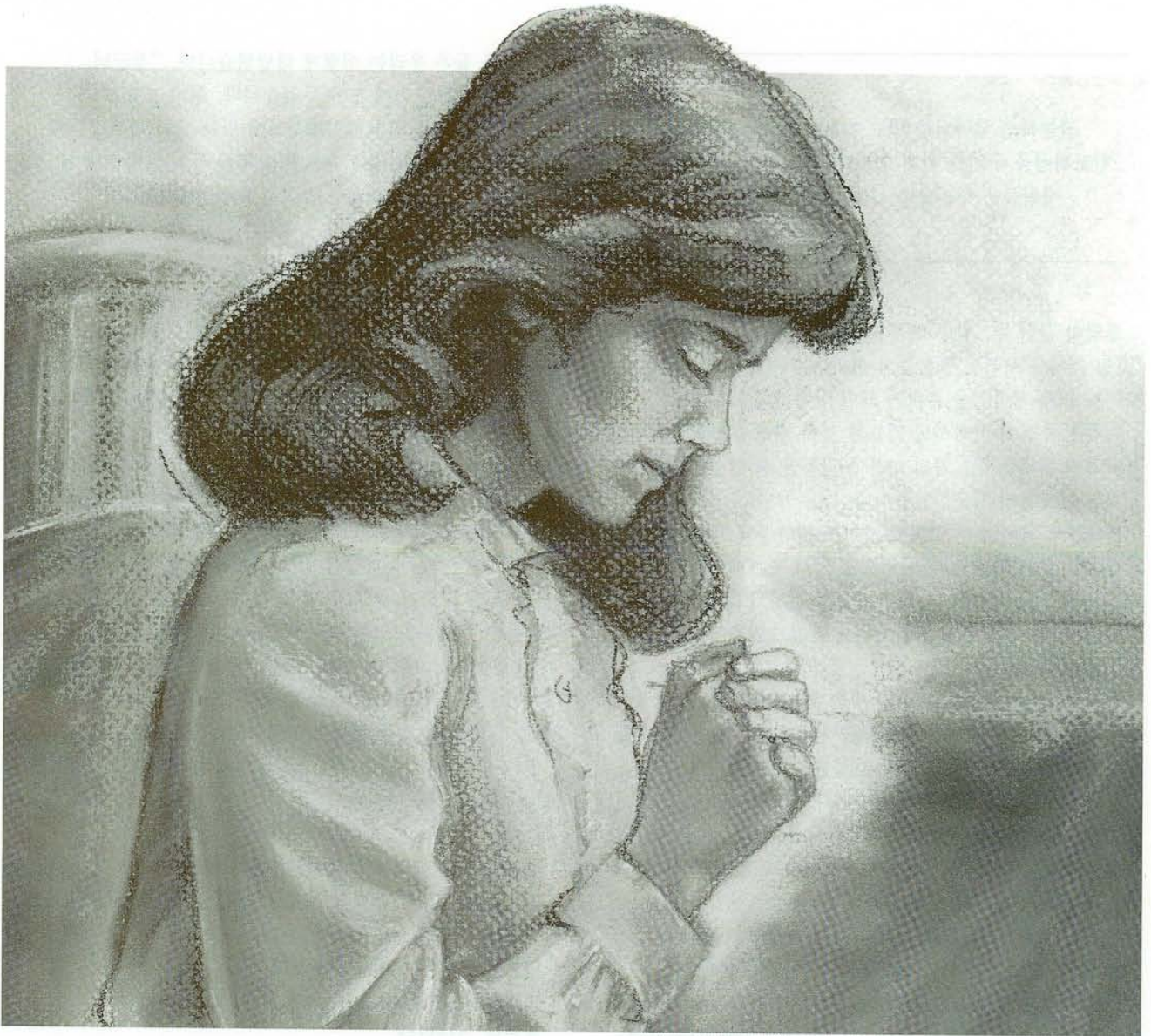
부친께서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거라.”라고 항상 권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권고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손을 뻗쳐

---

“성실한 기도란 우리가 어떤 덕이나 축복을 간구할 때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해 그리고 덕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뜻합니다.”

---





보이지 않는 힘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어떤 인간도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제가 1922년에 영국 북부 지역에서 선교사로 있었을 때 교회에 대한 반대 세력이 매우 극심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반대가 더욱 극심해지자 선교부장은 우리들에게 모든 가두 전도를 중단하고, 몇몇 지역에서는 전도 활동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저의 동반자와 저는 사우스 실트로 여행하여 성찬식에서 말씀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초청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배당 안을 꼭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해 쓰여진 거짓 내용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곳에 오신다면,

훌륭한 모임을 갖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초청을 받아들였으며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관해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동반자는 복음의 첫째 원리에 관해 말씀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며, 저는 배도에 관해 말씀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훌륭한 영을 느꼈습니다. 동반자가 먼저 말을 하고 영감에 찬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어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것처럼 막힘없이 말씀을 했던 경험이 그 이전에는 결코 없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서 저는 배도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관해 말씀하고 그의 거룩한 성품과 물문경의 진실성에 관해 간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여지가 없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몇몇 비회원들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물론교가 참되다는 간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침례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도자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말씀만을 할 수 있기를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46년에 저는 조지 알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으로부터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유럽으로 가서 노르웨이에서 남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선교부를 재건시키고, 식량, 의복, 침구 및 기타 복지 용품을 분배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세운 후, 대륙에 있는 군사 당국과 함께 사전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먼저 만나기를 원한 사람은 유럽에 있는 미군 사령관이었는데,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반자와 함께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서 장군과 면담 약속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관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적어도 삼일 안에는 장군을 만나볼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매우 바쁘시고, 각종 약속으로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일로 장군을 뵈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 베를린으로 가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장군께서는 시간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건물에서 나와 차 있는 데로 가서, 모자를 벗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다시 건물로 돌아가 보니 그 자리에 다른 장교가 있었습니다. 심오 분도 안되어 우리는 장군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단체에서든 기부되는 모든 원조 물품은 군대의 수중에 넘겨져 분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군을 만나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원조 물품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교회 회원들에게 분배하고 일반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과 그 운영 방법을 장군에게 설명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말했습니다. “알겠소 여서 가서 구호품을 모집하십시오. 여러분이 물자를 모두 모을 때쯤 되면 아마도 정책이 바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구호품을 이미 모아 두었습니다. 항상 모으고 있으니까요. 제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대관장단에 전보를 치면 24시간 내에 구호품 화물이 독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필품으로 가득찬 창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수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떠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가 직접 회원들에게 구호품을 분배할 수 있는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생각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옳은 일을 행할 때는 언제든지 응답해 주실 준비를 갖추고 계심을 알게 되면 그 기쁨이 영혼에 까지 미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여지가 없습니다. 박해를 받을때나 역경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우리는 확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평안을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 그 평정의 영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론 신권 소년 시절 저는 오늘날까지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기도에 관한 시를 배웠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난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언제나 내기도 들어주시며  
언젠간 응답주시리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며  
말없이 기다린다.  
내가 구하는 축복을  
그대로 주실지는 모르지만  
내 기도 주님께 맡겨 드린다.  
하나님 지혜 한없이오니  
내 기도 응답 주시고  
보다 큰 축복을 보내 주시리라.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주님은 우리에게 자주 기도 하라고 권고하셨다.
2. 기도는 의미있고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기도를 한 후, 우리는 기도를 성취시키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4. 본 기사 내용 중에서 가족이 함께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성경 또는 인용문이 있는가?







# 몰몬경 일천 권

토마스 엠 해들리

19 48년 여름에 동반자와 나는 덴마크 콜링에 있는 어느 집을 일곱 번째로 방문하고 있었다. 그 전에는 매번 지팡이를 짚은 조그만 부인이 문을 열어 주고, 선교사 책자를 받아 들고, 미소를 짓고는 말 한 마디 없이 친절히 문을 닫았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인과의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여느 때처럼 거절할 것에 대비하여 준비를 갖춘 우리는, 우선 그 부인의 남편이 문을 열어 준대 놀라고 말았다. 그의 이름은 마리너스 모겐슨이었다. 정이 많고 탐구적인 사람인 그는 몰몬에 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나의 동반자인 영 장로는 몰몬경에 관해 말했는데, 그것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우리는 그에게 몰몬경을 보여 주고 그에게 그것을 읽어 보라고 했다. “참으로 기쁘게 당신이 준 책을 읽어 보겠습니다.” 모겐슨씨가 우리에게 말했다. “나는 무슨 책이든 다 읽어 보았는데 이 책이라고 읽지 않겠습니까? 2주일 후에 다시 오시면 그 책을 다 읽을 것입니다.”

2주일 후에 모겐슨씨는 96페이지를 읽었으며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각 장을 여러 번씩 읽었는데, 그 때문에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책은 소설 이상의 것입니다. 이런 책이 바로 평생 읽어야 할 책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은 계속해서 몰몬경을 읽을 것이니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달라고 했다.

몇 주일 후, 우리는 모겐슨씨가 차를 타고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짓을 하며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는 표시를 했다. 우리가 차 있는 데로 가자 그는 문을 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장로님, 나는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그 책을 다 읽었는데, 그 책을 천 권 사고 싶습니다.”

영 장로와 나는 놀랐다. 모겐슨씨는 자기는 많은 시간을 들여 몰몬경을 연구했으며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성령에 의해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웃 사람들에게 책에 포함된 위대한 메시지를 전해 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선교부장을 만나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선교부장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다. 그리고 두 사람은 책을 배부할 준비를 하기 위해 만났다. 모겐슨씨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몰몬경을 몇 권 간직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선교사들에게 주어 관심있는 구도자들에게 빌려 주게 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

후에 모겐슨 형제는 영 장로와 나에게 그가 여러 해 전에 어떤 젊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입을 책을 준 꿈을 꾸었으며, 그 책을 읽고 큰 행복과 기쁨을 느꼈다고 말했다. 영 장로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영 장로님, 당신이 바로 내가 여러 해 전에 꿈에서 본 사람입니다.”\*

토마스 엠 해들리는 옥든 유타 이스트 스테이크의 하이랜드 와드 회원이다.

“나는 각 장을 여러 번씩 읽었습니다. 이 책은 소설 이상의 것입니다.”라고 마리너스 모겐슨은 설명한다. 그는 기도를 통해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었다.







# 차고 넘침에 감사함

랜디 스펠링

사랑하는 히스 형제 자매님께,  
두 분은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두 분에게 큰 은덕을 입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몰몬경이 지상에 차고 넘치게 하라”는 벤슨 대관장님의 권고에 따랐기 때문에 제 생애가 영원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988년 팔월에 두 명의 선교사가 두 분이 속 표지에 간증을 적어 주신 몰몬경을 저에게 전해 주신 것 때문입니다. 그 간증 속에는 “당신이 이제껏 소유하신 어떤 것도 이만큼 당신의 생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팔월의 어느 날만 해도 그 말이 제게 얼마나 참된 것이 될 것인지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랜디 스펠링이고 원래 다른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차 신앙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1988년 2월에 남편은 가족을 버리고, 돈을 모두 다 가져가 버려 제게는 청구서만 잔뜩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위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매주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필요로 했으나, 매주 한 번씩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영적으로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생의 큰 걱정 속을 헤매이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저는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깔끔하게 다려 입은 흰 셔츠에 검은 양복을 입은 단정한 두 명의 젊은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왔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친한 친구인 로리가 물문이었으므로, 로리의 신앙을 좀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두 젊은이들을 보면서, 몇 달 전에 로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로리는 저에게 재혼에 대해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딱잘라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재혼한다면,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아내에게 충실하고, 교회에 다니며, 정직하고, 욕설을 하지 않고, 물질보다는 가족을 더

사랑하는 남자를 원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평생 그런 사람을 찾아도 찾지 못할거야.” 로리는 웃으며 자기가 알고 있는 남자는 거의 다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두 선교사들을 보면서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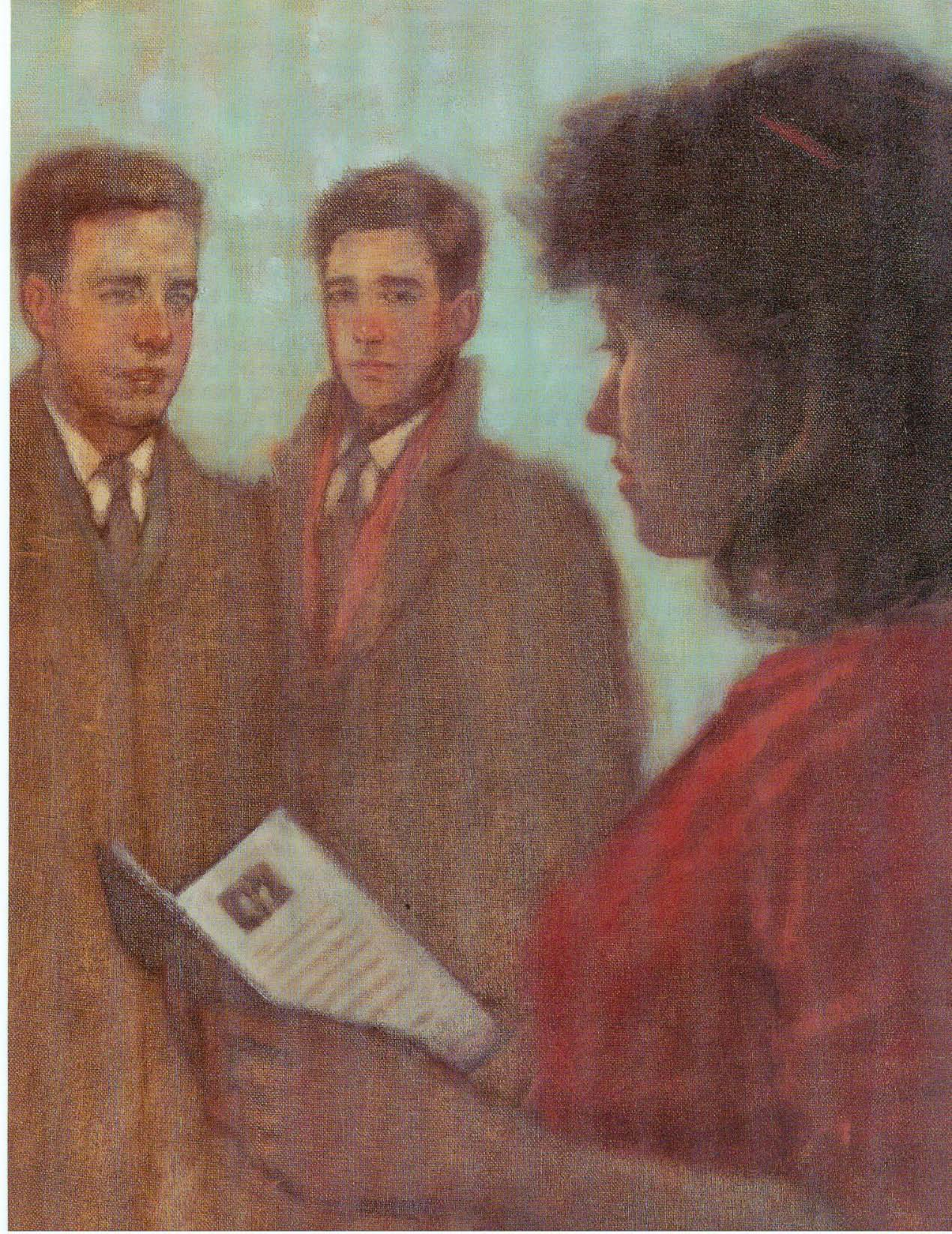
며칠 후 워커 장로와 메칼리스터 장로가 첫번째 선교사 토론을 전해 주었으며 그것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몰몬경을 주면서 그것을 읽고 그것에 관해 기도해보라고 했습니다. 히스 형제 자매님, 그 몰몬경에 두 분의 간증과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두번째 방문했을 때, 저는 선교사 토론을 받아 들이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저의 신앙의 전반적인 데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저에게 침례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미 세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침수에 의해 침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영원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는 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워커 장로가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겠느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어떤 남자가, 특히 저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제게 들려준 말씀을 곰곰히 생각하면서 저는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은 저에게 몰몬경을 주면서 그것을 읽고 그에 관해 기도해보라고 했습니다. 히스 형제 자매님, 그 몰몬경에 두 분의 간증과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곧 제 생활이 변화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의 제 생활이 좋았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는 그 물론 “책”을 보지 않고 선교사들을 내 집안으로 다시는 들여 놓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영에 이끌려 물론경을 펴고 잠이 와서 눈을 뜰 수 없을 때까지 읽었습니다.

잠이 든 저는 꿈 속에서 제가 캄캄한 암흑 속에서 길을 잃고 헤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눈에 모래가 들어가 앞을 볼 수 없는 것 같아 계속 눈을 비벼댔습니다. 눈을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때 깨끗한 물이 가득찬 연못을 찾을 수 있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저는 모래를 씻어 내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에서 나오자 참으로 밝은 빛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드디어 저는 밝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갑작스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선교사들이 웅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침수로써의 침례가 필요함을 제가 믿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들에게 밝힐 수 있을까? 저는 제가 경험한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으나, 다음 토론을 하기 위해 우리가 만났을 때, 영에 이끌려 제가 꿈의 그들에게 열심히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토론을 계속 했으며 저는 물론경의 내용을 더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저는 수 많은 밤을 지칠 때까지 물론경을 읽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망연히 책을 들고, 것처럼 귀중한 진리를 읽기에도 함당치 않은 느낌이 들어 울었습니다. 저는 제가 읽은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으나 여전히 제 생활을 바꿀 결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로리와 함께 교회 모임과 활동에 참석했으며, 연례 여성 대회의 방송을 통해 예언자의 말씀도 듣고, 교리와 성약에 관한 노변의 모임 발표회도 참석하고, 상호부조회 가사 모임에도 참석하고, 물론경 내용에도 익숙하게 되어 말씀이나 잡지 기사에 나오는 그 인용문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모임과 활동을 통해 만난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맺기 시작했으며 선교사들과도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겁이 났습니다. 나의 “옛” 생활에서 빠져 나오기가 겁이 났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과 그들의 신앙을 더 이상 받아 들이기 전에 이들에게서 벗어나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토론이 끝났을 때, 저는 한결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주관대로 살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사들과 회원들을 과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들의 종교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제가 어느 침례식에 초대받아 간 11월에 찾았습니다. 메칼리스터 장로가 어떤 청년을 침례주기 위해 침례탕으로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영에 완전히 압도되어 어느 교회가 제가 속해야 할 곳인가에 대해 마음속에 조금도 의심이 일지 않았습니다.

2주일 후에 선교사들이 저를 솔트레이크시티의 탬플 스퀘어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보고 들으면서 물론경을 읽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말일성도들은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가장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해 나감을 알면서 저의 남은 인생을 물론이 아닌 채로 지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위를 둘러볼 때,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들은 네 형제이니 그들과 함께 하라.”

다음 날 저는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저의 침례받을 날짜를 정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1988년 12월 11일에 침례받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들과 제가 만난 교회 회원들, 저와 같이 낮모르는 사람에게 귀중한 물론경과 더불어 간증을 전해 주신 두분 히스 형제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께서는 “물론경으로 온 지상이 차고 넘치는 것을 봅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홍수의 물결이 제게도 밀려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물결은 저를 질식시키지 않고 오히려 저를 지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의 자매  
랜디 스펠링





## 회원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

“물몬경에 간증을 적고 가족 사진을 붙여 다른 가족에게 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교회 회원 여러분에게 찬사를 드립니다. 이 책들은 우리의 선교사들에 의해 세계 방방 곡곡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수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께서 물몬경 보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어, 여러분 지역에 있는 선교부에 물몬경을 전해주시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우리는 매달 수백만 권의 물몬경을 선교사들에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짧은 시간내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세상이 물몬경으로 차고 넘치게 해야 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저는 자는 척 했습니다

릴리 스와니전이  
애니 스미스에게 한 말

저는 우리 가족이 제 감정을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는 것에 혐오감을 느끼며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누차 말했습니다. 저는 종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저의 생활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서른 세 살의 나이에 각종 경화증에 걸려 마비가 되게 하고 그도 모자라 몇 년 전에 제가 부친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그분 마저 앓아간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두 사람의 젊은이가 그들의 종교에 관해 우리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을 때, 저는 그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에서 걸어 나갈 수 없었으므로, 그들이 우리 가족에게 그리스도와 물론경이라는 책에 대하여 가르칠 때 잠자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고 한 젊은이가 기도하고 났을 때, 어머니는 그들이 며칠 뒤에 다시 오겠다는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마자, 저는 어머니에게 종교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니, 가족들이 그런 엉터리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그 젊은이들이 이곳에 있을 때 저는 제 침실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사흘 뒤에 다시 왔습니다. 제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저를 거실의 의자에 앉혀 놓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방안에 들어오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를 쓰기는 했으나, 제 참담한 세계로부터 그들의 말을 차단해 버리기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이 지상에 있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생을 마친 뒤에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생 들어온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가 아니라, 새 왕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토론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랄하고 관용을 베풀 줄 모르는 마음 상태이기는 했으나, 저는 옳은 것과 그릇된 것, 허구와 진실의 차이만은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생과 사에 관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제게 가르칠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광채를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종교에 관해 품어온 모든 잘못을 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무릎에 목본경을 놓고 떠나 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읽어 보고 싶었으나, 각종 경화증으로 대부분의 시력을 잃었으므로, 조카가 제게 읽어줄 시간을 찾을 때까지 참을성있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며칠 후 되돌아 왔을 때, 저는 제가 읽은 것에

몹시 흥미를 갖게 되었으나,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백인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들이 모두 백인이라면 흑인이 가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므로 모든 사람이 영접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세 흑인 가족이 와드에서 활동적으로 일한다는 것을 들은 저는 침례를 받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침례받은 지 일년, 많은 기도를 드리고 충실한 교회 회원으로서 여러 면에서 노력한 저는 에틀란타 성전으로 가서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다섯 시간이나 여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으나, 저는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일 년전, 의사 선생님들이 저에게 복합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2년 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목아래부터 완전히 마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복음을 갖고 있으며, 지금은 저의 질병이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충실하게 끝까지 견디는 한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합니다. \*

릴리 스와니건과 애니 스미스는 베시너 앨러바마 스테이크의 컬럼버스 와드에 살고 있다.









# 결혼 생활에서의 불의한 지배력

에이치 머크 피터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이처럼 심각하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극복하는 방법.

**가**정 내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충실한 아내 및 자녀들로부터 총관리 역원들이 편지 및 전화를 받는 회수가 점차 증가해 가고 있다. 도움을 바라는 그들의 외침은 가슴을 찢는 듯 하다. 그들의 하소연과 기도가 끊일 날이 없다.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면서 아버지이기도 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내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이러한 불의한 행위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마음의 고통을 받고 인생의 파국을 초래하고 있다.

불의한 지배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행사되고 있다. 비난, 분노 또는 극심한 좌절감 등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상당히 미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극단적인 경우, 불의한 지배력은 욕설이나 신체적인 또는 감정적인 학대로 표출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불분명한 형태로 나타나는 불의한 지배력은 무시되거나 인식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본 기사는 각 가정의 남편, 아버지 및 그들의 가족에게 우리 사회내에서 벌어지는 이처럼

중대하고 점증되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적합치 못한 행위를 인식하고 시정함으로써,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보다 극단적인 행위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불의한 지배력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점은 아니다. 남자는 여자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어떤 면으로든 이끌거나 지도하는 사람은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부모가 되었든 아니든, 모든 남자와 여자는 여기서 토론되는 원리를 배우고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과 견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독자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심어지기를 바란다.

## 불의한 지배력의 예

어느 부인의 글을 소개해 본다. “나의 남편은 정이 많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데, 그의 소망은 내게 물질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남편은 그 목표를 위해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는 먹고 잘 때와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할 때만 쉴 뿐입니다.”

그녀가 실제로 말하는 속뜻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남편이 가족에게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가족 부양과 성취 욕구가 남달리 강한 이 남편은 가족들에게도 완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을 다 성취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비난하는 말투를 사용한다. 그 부인은 말을 계속 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여인들에게 있어 삶은 외로운 투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들은 흔히 그들 자신의 태도를 바꾸라거나, 배우자를 더 사랑해주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타협하는 마음을 기르라는 충고나 듣게 되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의로운 생활의 태두리 안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자신의 꿈과 희망과 소망을, 끊임없이 자신의 실수만을



들추어내며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상기시켜 주는 사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남편을 기분 좋게 해주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에 자신이 과연 미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전화를 걸어온 자매도 있었다. 그녀의 관심은 남편이 정규적으로 외설 잡지를 구입하고 매일 밤 외설스런 비디오를 보며 그녀에게 감정이 상하는 이상한 요구를 해 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외설스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번민 끝에 전화를 하기까지 신권 지도자로부터 비밀을 지켜온 이 사람은 성전 봉사자로 일해 왔다.

어느 자매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관심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의 이해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집안의 신권 소유자들이 그들의 특별한 관심사를 기꺼이 제쳐놓는 도움을 몹시 필요로 합니다.

그녀의 말은 결혼은 했으나 남편과 거의 함께 하지 못하는 여인,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어린이의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들 남편과 아버지들은 그들 가족에 우선하는 다른 우선 순위를 갖고 있다. 그들은 사업이나 일상적인 일에 얽매어 꼼짝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필경 그들은 스포츠 열광자들이거나 텔레비전에만 매달려 있거나 가족과는 전혀 대화를 앓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가정 생활의 문제점과 압력을 피하기 위해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근면한” 교회 역원, 심지어는 지도자들일 수도 있다.

이 불의한 지배력에 대한 실례가 킴벌 대관장의 가르침에 잘 나와 있다. “남자들은 여성들에게 적합치 못한 면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때때로 우리 말일성도 여성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 주고 염려해 주어야 할 일을 게을리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궁핍한’ 이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부엌은 음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지만 우리의 자매는 여전히 애정과 인정의 결핍으로 굶어 갈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79년 4월호, 63페이지)

불의한 지배력의 다른 예는 아버지가 독단적으로 정한 규칙에 따르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으로 지도하는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실상, 남자들은 규칙을 스스로 지키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동참시킬 때 규칙에 관한 지도력의 차원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독단적인 지배력은 여러 면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어느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가정의 밤 모임을 가질 때마다 말다툼을 벌이고 화를 내게 되어 결국 모임을 계속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 가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심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이행해야 했을 가장이 현명치 못하게 가족들의 잘못을 지적해 내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했던 것이다. 잘한 것과 성취한 것에 대한 칭찬은 거의 없었다. 자녀들에게 칭찬해주고자 노력하기도 했으나, 그의 부정적인 비난을 만회하기에는 충분치 못했다.

#### 남편이 가정을 관리함

신권 지도자의 지도력에 관해서 존 에이 윗소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신권은 항상 그리고 반드시 반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회중 또는 보조 조직에 속한 여인들 중에는 그들을 관리하는 남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정신 능력도 우월하고, 지도력도 월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신권은 정신 능력을 토대로 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에 의해 부름받은 훌륭한

남자들에게 주어져, 거룩한 은사의 권능에 의해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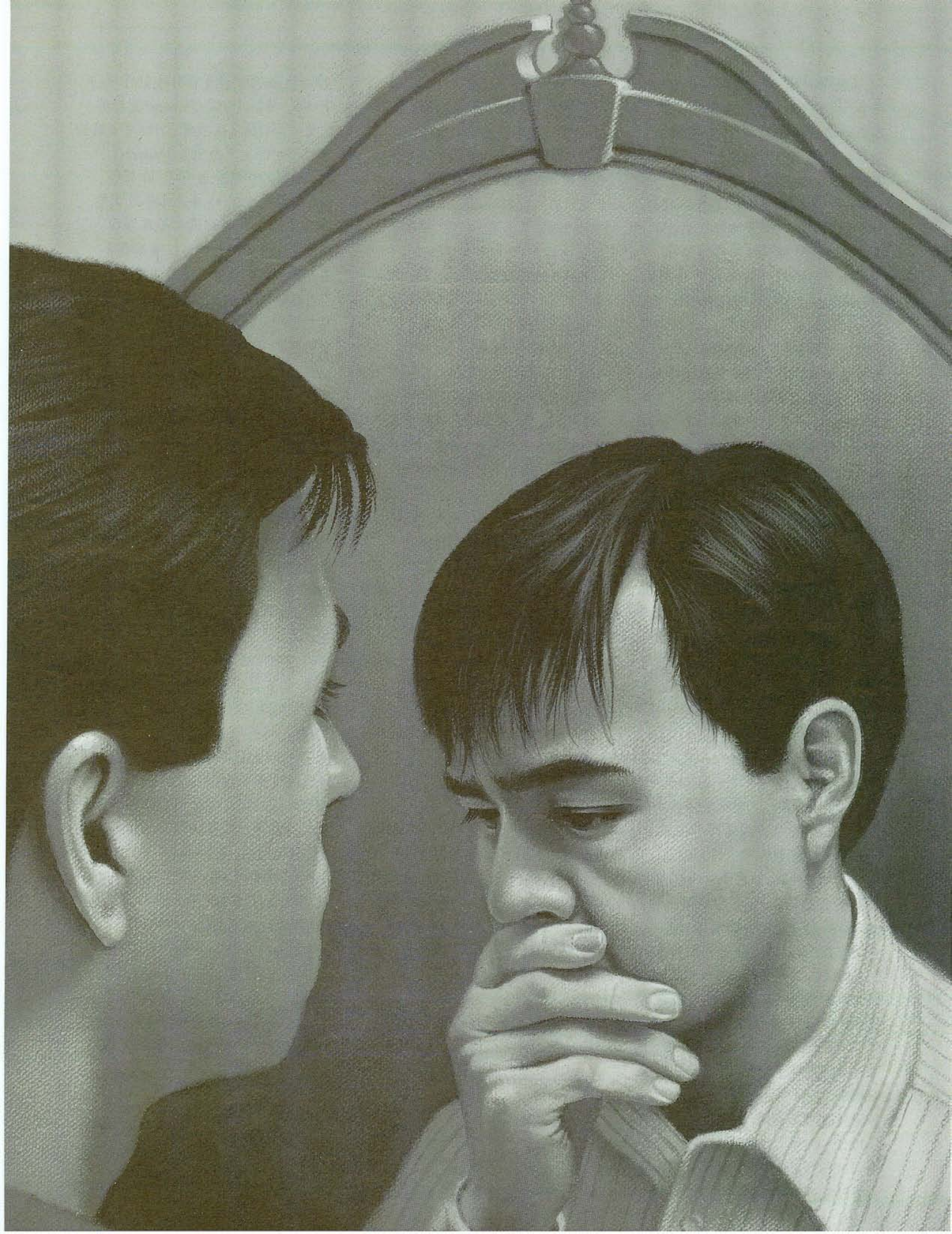
여성들도 동등한 은사를 받고 있으며, 이 은사는 훌륭하고 강한 사람들에게나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도 주어집니다.”(신권과 교회 행정, 존 에이 윗소 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39년 90페이지)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이러한 관계는 가정에까지 연장된다고 가르쳤다. “복음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남자에게 신권의 권세를 부여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여성의 부름은 그 각도가 다릅니다. 모든 부름 중에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것은 여성에게 주어진 어머니로서의 부름입니다. 여성은 신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실하고 진실한 여성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여제사장이요, 왕비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성은 남편과 함께 신권을 소유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 신권을 통하여 오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구원의 교리, III권 브르스 알 맥콩키 편, 솔트레이크시티 : 북 크래프트사, 1954~56, 135페이지)

그러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원리는 남편이 신권을 갖고 있지 않은 가정에도 적용된다. 킴벌 대관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남편이 결혼 생활을 다스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창세기 3 : 16)”(스펜서 더블류 킴벌의 가르침, 316페이지) 이런 면에서, 킴벌 대관장의 자서전에 있는 현시를 유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권은 항상 그리고 반드시 반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평등한 동반자, 카밀라 아이링 김볼에게 바칩.”이라 적혀 있다. (에드워드 엘 김볼과 앤드류 이 김볼 이세, 스펜서 더블류 김볼,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77년 참조)

하늘의 반차(교성 129 : 7 참조)에서, 남편은 가정을 다스릴 권능을 받았다. 이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관리 방법에 관한 한 서로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시정하기도 해야 한다.

때로 남편들은 자신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권리 및 자기 아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독단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의로운 기반 위에 세워진 가정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동반자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남편은 공식적인 명령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는 양자간에 합의되는 공동 결정을 내리기까지 아내와 함께 협력해야 한다.

남자는 자신이 아내나 자녀에게 훌륭한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은 다만 사랑과 칭찬과 인내심을 통해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절대로 무력이나 강제에 의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많은 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의 책임을 도맡아 행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들은 흔히 그들에게 내려지는 모든 요구 사항을 견제해 나가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을 수행해 나간다. 아내를 비판하고, 하지 못한 일에 대해 견책 만을 일삼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남편은 좌절감 만을 심어줄 뿐이다. 그러나 칭찬을 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게 되면 아내가 더 열심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하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비난은 배우자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애정과 감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바울은 이렇게 충고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에베소서 5 : 25) 이 권고의 말씀에 관해, 김볼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견을 제시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모든 숨결이 그분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그에 속한 모든 개인이 그분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백성에게 자신의 모든 정성과 힘과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그 위에 무엇을 더 주실 수 있었습니까? ... 남편이 자기 가족을 이처럼 대한다면 아내와 자녀는 사랑이 넘치고 모범적인 그의 지도력에 따를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할 것이므로,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확실히 존경받고자 하는 가장은, 존경받을 점을 키워야 합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가장은 일관성이 있고, 사랑을 베풀고, 이해심이 있고, 친절해야 하며 신권을 존중해야 합니다.”(모범이 되는 사람, 팜플렛, 솔트레이크시티 : 교회 교육 기구, 1973년 5페이지)

### 신권의 권능(Authority) 권세(Power)

신권의 권능(Authority)과 권세(Power)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제들이 더러 있다. 두 용어는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신권의 권능은 합당한 신권을 가진 자의 안수에 의해 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계시에 의하면, 신권의 권세는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이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신권의 권능(Right)은 하늘의

권능(Power)과 굳게 매어져 있어 뺄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Powers)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 “이 권능(Power)은 우리에게 수여되는 것이니, 이 또한 사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과 헛된 야망을 채우며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인간의 자녀를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시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즉 권위(Authority)는 아멘이니라.”(교성 121 : 36~37)

하늘에서 오는 이 권세는 집안을 축복하고 강화시키며, 치유하고, 위로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항상시키고 격려하는 것이 신권의 권세이다. 이 권세를 키우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교리와 성약 132편 20~21절에 나타난 약속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저들은 끝이 없음으로 신이 될 것이요, 계속되는 연고로 영원으로 부터 영원으로 이르리라. 그 때에 저들은 만물 위에 있으리니, 만물이 저들에게 복종함이라. 그리하여 저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저들이 모든 권능(Power)을 가졌고 또 천사 들도 저들에게 복종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영광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구절에 나오는 “율법”에 부수되는 것은 의로운 지배의 원리이다. 권세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리와 성약 121편 41~42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설명을 생각해 보자. 이 설명은 구체적으로 신권을 가리킨 것이지만, 특히 남편이나 가장들과 같이 권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러한 원리를 잘

---

하늘에서 오는 이 권세는 집안을 축복하고 강화시키며, 치유하고, 위로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항상시키고 격려하는 것이 신권의 권세이다.

---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권세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다스리는 사람이다.

설득에 의해서. 그는 야비한 언행을 삼가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지 않으며, 남자, 여자, 소년 소녀를 가릴 것 없이 그들의 자유 의지와 인품을 존중한다.

오래 참음으로. 그는 필요하다면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아주 비천하고 어린 사람들에게도 귀를 기울인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그럽게 받아 들이고 성급하게 판단내리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부드러움으로. 그는 상을 쟁그리기보다는 미소로 대한다. 그는 소리치거나 무섭게 굴지 않고, 화가 나서 징벌을 가하는 일이 없다.

온유함으로. 그는 자랑하지 않고, 대화를 독차지하지 않으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일치시킨다.

다함 없는 사랑으로. 그는 기만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을 때라도 그는 속에 접어 두는 일이 없이 진실하고 솔직하게 사랑을 베푼다.

친절함으로. 그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예절바르고 사려 깊게 행한다.

순수한 지식으로. 그는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버리고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 탐구한다.

위선을 버리고.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원리를 실행한다. 그는 자신이 항상 옳은 것 만은 아님을 알고 자신의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안다.

교활하지 않음. 그는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서 교활하거나 술수를 쓰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정직하고 신뢰감 있게 표현한다.

### 경전에 대한 오해와 잘못 사용함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경전의 가르침의 문맥을 무시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예를 들어 본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꾸짖을 일이 있을 경우, 여러분에게 싸매어줄 유향이 있지 않는 한 꾸짖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잘못 가르침을 받은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그들의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이 성구를 사용하는 수가 있다. 그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교회 활동에 소비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이 권고를 사용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 교회의 부름을 남보다 뛰어나게 수행하여 칭찬과 관심을 받기 위해 주로 그와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 집안에서 가족의 필요 사항을 들어주는 것은(때로는 교회의 책임에 상충될 수도 있는 것으로서) 그다지 눈에 띄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 및 다른 지도자들은 부름과 지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행하려는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불행히도, 지도자들 중에는 모임에 참석하거나 특별한 지명 사항을 즉시 이행하지 않고 가족의 일을 돌보는 회원들에게 상당히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한 지도자들은 두 가지 의로운 행위 사이에서 현명하게 선택하는 회원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때때로, 그러한 지도자들은 회원들이 가족의 절박한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잘못을 범한다.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잘못 이해되고 오용되는 성구로 또한 교리와 성약 121편 42절을 들 수 있다.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즉시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후에는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저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우리는 날카롭게 꾸짖는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날카롭게 꾸짖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단호하게, 진지한 의도로 꾸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아냥거리며, 원망스럽게 또는 화가 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여 꾸짖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 지칭하신 대로 꾸짖는 사람은 원리를 다루어야지 인품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인격을 모독하거나 개인적으로 모욕해서는 안된다.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대체로 개인적인 꾸짖음이 공적인 비난에 앞서야 한다. 와드 전체가 비난받을 필요가 있지 않는 한, 감독이 집단적으로 말하기 보다는 개인에게 말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 자녀나 배우자는 자신의 실수를 은밀한 곳에서 들을 권리를 갖고 있다. 공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잔혹한 것이며 적어도 잘못된 것이다.

브리감 영은 우리에게 바르게 꾸짖는 비결을 제시해 주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꾸짖을 일이 있을 경우, 여러분에게 싸매어줄 유향이 있지 않는 한 꾸짖지 마십시오... 손에 징벌의 매를 들고 있을 경우, 그 매를 개인의 파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설교집 9 : 124~25)

모든 남편 및 아버지들은 자신이 불의한 지배력을 사용하는지 알아 보기 위해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아야 한다.

1. 나는 가족을 칭찬하기 보다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가?
2. 나는 내가 아버지요 남편이며 신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주장하는가?







1. 나는 가족을 칭찬하기 보다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가?
2. 나는 내가 아버지요 남편이며 신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주장하는가?
3. 나는 집안에서 보다는 직장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 더 행복을 찾지는 않는가?
4. 나의 자녀들이 그들의 감정과 관심사에 관해 나에게 말하기를 꺼려 하지는 않는가?
5. 나는 체벌이나 징벌을 가함으로써 내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하지는 않는가?
6. 나는 가족을 다스리기 위해 수많은 규칙을 마음대로 정하고 시행하지는 않는가?
7. 가족들이 나를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8. 나는 가족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능 및 책임을 다른 가족들과 나눈다는 생각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가?
9. 나의 아내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며 스스로는 결정을 내릴 수 없지는 않는가?
10. 나의 아내는 내가 돈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집안 일을 꾸려 나가는 경비가 불충분하다고 불평하지는 않는가?
11. 나는 자녀들에게 영에 귀를 기울이도록 가르치기 보다는 가족 각자에게 스스로만을 의지하도록 주장하지는 않는가?
12. 나는 가족들에게 자주 화를 내고 비난을 퍼붓지는 않는가?

3. 나는 집안에서 보다는 직장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 더 행복을 찾지는 않는가?

4. 나의 자녀들이 그들의 감정과 관심사에 관해 나에게 말하기를 꺼려 하지는 않는가?

5. 나는 체벌이나 징벌을 가함으로써 내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하지는 않는가?

6. 나는 가족을 다스리기 위해 수많은 규칙을 마음대로 정하고 시행하지는 않는가?

7. 가족들이 나를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8. 나는 가족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능 및 책임을 다른 가족들과 나눈다는 생각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가?

9. 나의 아내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며 스스로는 결정을 내릴 수 없지는 않는가?

10. 나의 아내는 내가 돈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집안 일을 꾸려 나가는 경비가 불충분하다고 불평하지는 않는가?

11. 나는 자녀들에게 영에 귀를 기울이도록 가르치기 보다는 가족 각자에게 스스로만을 의지하도록 주장하지는 않는가?

12. 나는 가족들에게 자주 화를 내고 비난을 퍼붓지는 않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예”라는 대답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족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 자신이 과연 가족의 삶을 지배하고자 하는지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 그의 관계를 살펴 보는 것이다. 성신이 차츰 줄어들고 빠져 나감을 느끼게 되면(다툼, 불화 또는 반항 등으로 나타나는), 자신이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함을 알 수 있다.

불행스럽게도, 불의한 지배력에 관한 주님의 권고를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 스스로를 징벌할 줄 알고 권능을 의롭게 사용할 줄 알고 쉬지 말고 덕으로써 (우리) 생각을 장식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네 영육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게로 흘러 들어가리라.”(교성 121 : 45~46)

그때는 얼마나 멋진 날이 될 것인가! \*



# 이런, .....!

클린 레이튼

**이**럴 수가! 그 낱말이 마치 종이에서 나를 향해 튀어나오는 듯하면서 반에 있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생각 저편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홀륭하면서도 엄격하신 웅변 선생님이 방금 우리 반 학생들에게 원고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읽을 부분을 각각 지명하셨다. 첫 페이지를 대충 훑어보다가 그 낱말을 보는 순간 내 시선이 딱 멈추고 말았다.

왜냐하면 원고에서 그 부분을 코니가 읽도록 지명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반 학생들은 거의 다 꺼리낌 없이 그 상스러운 낱말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코니를 알고 있었다. 나는 코니가 모든 면에서 높은 표준을 조금도 낮추지 않고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코니의 순결하고 행복한 생활은 주위에 모범이 되어 왔다.

코니는 깨끗한 생각을 하며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아 왔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와 같은 낱말에 전혀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선생님 때문에 코니는 그 표준을 깨뜨릴 딱한 처지에 놓였다. 학생들은 이미 큰소리로 원고를 읽고 있었으므로 나는 코니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궁금했다. 드디어 코니의 차례가 되었다. “이런, 호박같이!”라고 코니가 큰 소리로 읽었다. 깜짝 놀란 학생들이 큰소리로 웃어 댔다.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드시더니 잠시 코니를 유심히 보셨다. 그리고는 코니가 그저 친구들의 주위를 끌려거나 웃겨 보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다. 그러나 코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명받은 부분을 계속 읽었다.\*





# 성약을 지킴으로써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목적 : “네가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라.”

(교성 25 : 13)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말일성도들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떠나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시간을 들여  
성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특히 죽은 조상들을 위해 봉사하고,  
가족을 의롭게 키우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성약입니다.

성약은 성스럽고 영원한 계약이며  
약속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성찬식 동안 또는 성전에서 맺는 성약과  
같이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약속이 될  
수도 있으며, 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들의 의로운 후손과  
맺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서 2 : 8~11; 창세기  
17 : 19 참조) 주님은 각 성약을 맺을  
때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과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을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성약을  
맺고 안 맺고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문경은

말일성도들이 “내가 기록한 것에 따라  
행하기”(교성 84 : 57) 위한 성약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복음을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교성 22 : 1; 66 : 2  
참조)이라고 정의하십니다.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많은 성약을  
맺어야 합니다. 침례받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를 받들어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모사이사서 18 : 10) 증인이 될  
것을 결심합니다. 또한 일요일마다 “항상  
그를 생각하여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교성 20 : 77) 다시 증거하기 위해



성찬을 취합니다.

“주님에게 그 성약은 참으로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자주 성약을  
되풀이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성약을  
여러 번 되풀이 하고 나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반면에 만일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면 ‘모든 것 중에 가장  
바람직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에이치 벌란 앤더슨 장로,  
뉴이라, 1989년 4월호, 6페이지)

성약을 지킨다면 우리가 좀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솔트레이크에 사는 캐더린  
맥기어 자매는 이웃의 짐을 가볍게  
함으로써 성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곱  
자녀를 둔 어머니요 정규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늙으신 어머니를  
돌보아 드리는 맥기어 자매는 건강이나  
노령으로 인해 집안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자매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최근에

이혼한 자매를 격려해 주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좌절감에 빠진 이야기를 동점심을 갖고  
들어줍니다.

성약을 지키는 것이 교회 봉사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은 스테이크 부장직에서 해임된  
어느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며,  
해임될 때도 똑같이 행복한 마음으로  
해임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단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봉사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성약을 맺었기 때문에 봉사한  
것입니다. 저는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같이 가정 복음  
교사로서도 저의 성약을 훌륭히 지킬 수  
있습니다.”

패커 장로님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의식과 성약은 우리가 그의 면전에서  
들어가기 위한 신임장이 됩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것은 일생의 문제요, 그  
후에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은 지상  
생활의 과제입니다.”(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성약”, 23페이지)\*

##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복음의 성약이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토론한다.
2. 여러분이 맺은 성약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그 느낌을  
전한다. 방문하고 있는 자매에게 성약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말할 때 마음이  
편안한지 물어본다.  
(가정의 밤 자료집, 52, 56, 120페이지  
참조)







교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하는 것임

# 협력하여 일함

신권 지도자들과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일할 수 있을까요?



웨리 존슨,  
유타주 서 바운티풀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이** 문제에 관해 저와 대화를 나눈 신권 지도자들과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성공적인 협력 관계에는 두 가지 면, 즉 협동하는 자세와 올바른 의사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협동하는 좋은 자세를 기를 수 있을까요? 어떤 현명한 스테이크 부장은 신권 지도자들과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전에는 어떻게 했었는가?”라고 질문하기 보다는 “구세주께서는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와드 지도자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함께 일하는 것에 관한 그들의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몇 가지 와드의 “전통”이 검토되었는데, 그 첫번째 것은 와드 예산이 신권회에서만 논의되고 있었으며 상호부조회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구세주께서는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구세주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교회 지침서를 참조하였습니다. 교회 지침서에는 예산에 관한 문제는 모든 와드 회원과 함께 특별 모임에서 토론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의 “전통”은 변경되었으며, 그와 같은 계획 모임에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참석하게 된 이후로는 자매들이 와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그들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의논할 때에 흔히 신권 지도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어떤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매들이 “구세주께서는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다*라고 자매들은 결론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자매들은 상호부조회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사전에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두번째 방법은 올바른 의사 소통입니다. 우리 스테이크에서는 스테이크 부장과 그의 보좌 한 명, 상호부조회 담당 고등 평의원 및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월례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임에서 스테이크 부장은 상호부조회 회장단에게 스테이크 목표와 새로운 정책 및 최근에 강조하는 주제 등을 알려 줍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에 관하여 우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상호부조회의 목표와 행사, 의견 및 문제에 관해 스테이크 부장에게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 이 모임은 우리가 그 모임을 위해 소비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한번은 모임에서 스테이크 부장이 최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일을 설명한 후 스테이크에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고등 평의원들이 그 주제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되었으며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기중 그것에 대해 가르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주말에 스테이크 상호부조회役員회를 계획하기 위해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스테이크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테이크 부장과 토론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번은 우리가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물문경을 읽는 것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그 모임에서 토의된 내용들을 스테이크 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스테이크 부장은 우리가 세운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어와 계획을 단지 서로 교환하기만 해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신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서로 알고 서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의사 소통이 중요함을 알려 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스테이크는 긴급한 경우의 복지를 위한 저장 식품에 대한 임무 지명을 받았습니다. 복지 담당 고등 평의원은 그 임무 지명을 일요일에 받았으나 그것을 일요일 모임에서 제때에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감독들만이 그 임무 지명에 대해 통보받았습니다. 화요일에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 모임에 참석했을 때 저는 “그들은 어찌서 겨우 삼 일 전에 통보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 임무 지명에 대해 6주 동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등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사실 여부를 내가 몰랐던 것이 나를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했습니다. 나는 그 모임에서 자매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났을 때 나는 자매들이 얘기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정확하지 않았으며, 만일 내가 그 상황에 대해 좀더 알고 있기만 했었더라도 그 즉시 정확하지 않은 사항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전에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위급한 사항이란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에는 신권

지도자들은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에게 활동 및 임무 지명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연락을 받게 되면,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와드나 스테이크에서 선의와 열의를 북돋아 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인비 사항을 다루는 데 있어 신뢰받을 만하고 신권 지도자들을 돕는 데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의 영향을 해치는 험담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는 피해야 합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또한 스테이크나 와드 단위로 행하는 만찬회나 다과 모임을 계획할 때만 아니라 정규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에도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자매들이 영성과 사교적인 능력을 키우도록 상호부조회 활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자매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경전에 대한 지식을 쌓으며,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테이크 및 와드의 영적인 발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한 팀으로서 효과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보조 조직(상호부조회·초등협회·청녀) 지도자들이 모임에서 고등 평의원과 함께 말씀을 하도록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감독단 훈련 모임, 고등 평의원 훈련 모임 또는 기타 신권役員회에서 신권 지도자들이 자매들을 이해하는 데 여성의 견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초대되어 말씀을 한다면 신권 지도자들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를 통해서 신권 지도자들은 좀더 효과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안목을 넓힐 수 있게 됩니다.

신권 지도자들과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서로 권고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함께 노력할 때 우애감과 협력 관계는 돈독해 질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훌륭한 일을 많이 성취시킬 수 있으며 좌절감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신권 지도자들과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함께 효과적으로 일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익은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고린도전서 11:11)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 남과 다른 삶

리카르도 바티스타

**모**든 사람이 첫눈에 진리의 길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신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나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그리스도의 빛에 은혜를 입어 내 인생에도 훌륭한 방향 제시가 있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올바른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할 것을 내게 가르친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그러한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명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당시 내가 아는 사람들과는 “남다르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젊은 여성인 미리암을 알게 되었다. 그녀에게는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이 발산되었다. 우리는 함께 다니게 되어 매우 친한 친구가 되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는 마음을 터놓고 의견 교환을 했으며, 종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의견이 합치되었다. 어느 날 오후 요셉 스미스(나는 그를 예언자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와 물몬경(그 역시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것이었다.)에 관해 토론하고 난 뒤, 그녀는 나에게 스테이크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부름받았다고 말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는 그녀가 부름을 받아들인 사실에 화가 나 그 결정을 재고해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침착하고 자신있는 대답에 나는 기가 질렸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무엇보다도 그 결정을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나에게 교회에 참석하기를 권하고 그것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 결정해 보라고 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는 결과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한 미리암의 종교가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목격하니 나는 내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그러한 결정, 즉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다음 일요일에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내 인생의 진리의 빛이 증가되었다. 문으로 들어선 나는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큰 키에 금발 머리에 피부가 흰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맞아 주며, 자신이 와드의 감독이라고 소개했다. 곧이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나를 맞아 주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서 것처럼 진실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런 다음, 나는 모임에 참석하여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감명 깊게 영적인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처럼 확신에 차고 감동적인 말씀을 듣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미리암이 내게 모임에 대한 느낌을 물었을 때, 나는 깊이 감동되었음을 시인하고 싶지 않아, 약간 농담조로 넘겼다. 그러나 내 영혼에는 더 많은 빛이 들어왔으며 나는 왜 미리암과 그녀의 교회 회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지” 어렵듯이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종교는 어느 것이나 모두 너무나 신비스럽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 알아보는 데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미리암과 함께 계속해서 교회에 참석하면서 내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품고 있었던 모든 질문이 풀렸다. 그 빛은 점점 커져 마침내 나를 침례의 길로 그리고 나에게 처음으로 길을 보여 준 여인과의 성전 결혼의 길로 인도하였다.

청소년 시절에는, 인생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아 보였다. 그러나 그 중 많은 길은 불행으로 향해 난 길일 수도 있다. 내게 영원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 준 특별한 여인을 축복해 주신 주님께 어떻게 빛을 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

리카르도 바티스타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스트 스테이크의 회원이다. 그와 바티스타 자매는 스테이크 청년 독신 성인 교문으로 일하고 있다.



# 외설물과 맞서 싸움

알 게리 샤피로

가족이 즐기는 오락물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세속적인 표준에 따라 내리는 외설물의 정의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말일성도는 더 높은 표준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

**열** 일곱 살된 아들은 그의 친구들이 이미 본 영화를 보기를 원했다. 우리는 신문에서 그 영화에 대하여 “성, 불경, 폭력 그리고 저속함” 등으로 평한 기사를 읽었다.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그런건 내가 매일 학교에서 보고 듣는 것보다 별로 더 나쁠 것도 없어요.”라고 아들이 말했다.

“그렇지도 모르지.”라고 내가 대답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를 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 영화가 외설 영화라는 신문의 논평을 말해 주었다.

“그건 외설 영화가 아니예요, 아빠. 신문에 그것은 청소년 코미디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청소년이예요.”라고 아들이 맞섰다.

나는 “그래, 그러나 너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 너는 하나님의 신권을 갖고 있으니, 가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

그는 가지 않았다.

## 외설물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부모로서 외설물에 대하여 단순한 복음 용어로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외설물이란 “순결 또는 정숙을 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사전의 정의로 시작하고자 한다. 정숙 및 순결의 원리는 어린 자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의가 도움이 된다.

말일성도들은 정숙에 대해 분명한 표준을 갖고 있다. 그것을 성전 가먼트로 규정한다. 가먼트는 대중 앞에서 노출되어서는 안될 육신을 덮어 준다. 우리 육신을 적절하게 가려 주는 것이 곧 정숙한 것이다. 헐렁하게 또는 너무 꼭끼게 옷을 입는다든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옷차림은 정숙하지 못한 것이다. 수영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때에라도 복장 및





다들 물어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로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어. 정말로  
사랑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옷차림이 정숙해야 하며 취향이 훌륭하고, 활동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육신 또는 그 기능에 대한 불경스런 말씨 역시 정숙하지 못한 형태이다.

순결은 신성한 생식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특히 결혼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이다.

주님은 인간의 육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 (교성 93 : 35 참조) 성전은 주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다. 성전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성스럽다. 그리고 가장 성스러운 능력인 생식 능력은 성전 안의 해의 왕국실에 비유될 수 있다. 성전 벽과 장막은 이 거룩한 곳을 거룩하게 지켜 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한다. 같은 의미에서, 생식 능력은 여러 층의 정숙의 막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가 결혼의 범위 내에서만 생식 능력을 사용하고, 그것을 경건하게 생각하고 경건하게 말할 때 순결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 부모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1. 우리 가정 및 이웃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외설물을 재평가한다.

말일성도 지도자들은 외설물의 폐단과 위험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해 왔으며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아들들 중에서 한 아이가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최우수 영화로 평가된 영화를 보겠다고 했다. 나는 아내와 함께 그 전편을 본 일이 있었으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보도록 허락했었다. 이 새로 나온 영화의 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아들에게도 보도록 당연히 허락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길게 평한 데에서는 이런 경고가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불행히도 성적인 측면이 여기서도 대두되고 있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한 장면은 충분히 청소년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몰고갈 수 있다...”

이 영화평은 “부모는 이 영화가 특히 어린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님을 충고해 주어야 한다.”라는 경고로 끝을 맺고 있다.

성경의 기준에 미루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외설 영화였다.



---

성도들은 장차 구세주께서 오실 시은, 곧 깨끗하고  
청결한 사회를 이루는 데 성공할 것이다. 다른 불결한  
것들과 더불어 외설물은 그 사회에서 제거될 것이다.

---

영화만이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책, 잡지 및 노래책 등도 그와 마찬가지로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신문 또는 잡지 비평가의 의견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심사평에서 성경의 표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말일성도들에게서조차 다음과 같은 말을 점점 더 자주 듣게 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몇 군데 좋지 못한 부분만 제외하면 정말 좋은 영화(또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당신도 분명히 좋아할 것입니다.”

연차 대회에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장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간음, 외설, 나체, 부도덕성을 그려 내는 작품을 단지 젊은이들만 못 보게 금지시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연령 제한을 하는 것은 분명히 위선입니다.”(성도의 벗, 1984년 7월호, 41페이지)

정숙 또는 순결을 범하는 것이 포함된 작품은 외설물이며 당연히 피해야 한다. 그저 피하기만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외설물에 대처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이라는 교회에서 발행한 영어로 된 책자에는 외설물을 접하지 않기 위한 다음 단계가 제시되어 있다.

“인간의 품위와 건전한 생활에 중점을 두는 개인 및 가족의 표준을 정한다.”

“외설물 및 그 위험성에 대하여 합당한 연령층의 자녀들과 공개적인 가족 토론을 한다.”

“육신의 성스러운 본질과 합당한 성적인 관계의 기쁨을 강조한다.”

“외설물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를 피한다.”

“텔레비전 시청을 통제, 조정한다.”

“신빙성이 있는 비평을 근거로 하여 영화 및 기타 오락물을 선택한다.”

“좋은 책을 읽고...그것을 자녀들에게도 읽힌다.”

“적합하지 않은 음악 및 가사를 알아본다. 그것이 젊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한다.”

2. 우리의 주장을 들려준다.

어떤 상점에서 외설물을 팔거나 빌려 준다면, 그것을 제지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한다. 상점 소유자나 경영자에게 조용히 말하거나 자세하게 글로 써서 편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것처럼 노력해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이웃과 학교 또는 사회 단체와 합세하여 그 상점에 온건치 못한 것을 선반에서 빼버리도록 권고한다.

신문 편집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광고 업자 및 입법자에게 편지를 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이다.

교회 회원들이 외설물에 대하여 단체 행동을 취하는 비회원들과 합세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 3. 반대를 예상한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마주치게 되는 반대의 정도에 의해 우리의 행동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의로움을 추구하는 데에는 반드시 비판이 따르게 된다. 뱅거터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성행위, 외설물, 나체, 음란 행위와 같은 것들을 전시하는 행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항하고 그들의 행위에 반대 의견을 표하면 우리는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이기라도 하듯이 그들은 우리를 쫓나기, 위선자, 청교도인, 독선주의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인체의 ‘미와 자연성’을 감상할 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비난받을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4년 7월호, 41페이지)

성도들은 장차 구세주께서 오실 시은, 곧 깨끗하고 청결한 사회를 이루는 데 성공할 것이다. 다른 불결한 것들과 더불어 외설물은 그 사회에서 제거될 것이다. 한편, 우리가 정숙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그러한 시은을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다 해도,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주님의 편에서야 할 필요가 있다.\*

알 게리 샤퍼로는 플래즌트 그로브 유타 팀파노고스 스테이크의 플래즌트 그로브 제11 와드의 회원이다.





# 먼 곳에서 갖는 파티

재닌 헨슨

남편과 세 딸 그리고 내가 먼 지방으로 이사하여 가까운 친지들과 떨어져 지내게 된 어느 날, 우리는 우편으로 보내진 아들 삼촌의 사진을 받았다. 세 딸 아이들은 삼촌을 잘 알고 있던 터였으므로, 나는 세살 난 딸 아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데 놀랐다. 우리가 고향집을 떠나온 지는 육 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이 일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직계 친척을 알고 소속감을 느끼며 자라기를 원한다면 아이들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확신했다. 남편과 나는 가정의 밤 시간을 활용하여 이 목적을 이루기로 했다.

우리는 여든 한 살의 생신을 맞게 되실 시조모님으로부터 시작했다. 할머니의 생신이 되기 전 주의 가정의 밤을 마친 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분이 생일을 맞게 되어 있으니 함께 축하해 드리자고 했다. 먼저 그들이 전에 할머니와 함께 하면서 즐겼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할머니의 사진 몇 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다음에는, 남편이 어린 시절에 할머니의 농장에서 즐겼던 경험과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몇 가지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색종이와 크레용과 풀을 꺼내 왔으며 딸들이 각자 증조 할머니에게 드릴 생일 카드를 만들었다. 남편은 할머니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편지를 썼다. 이튿날 우리는 그것을 우송했다.

딸 아이들은 그 일을 재미있게 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할머니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보람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는 모두 가족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먼 곳에서 갖는 생일 파티가 우리 가정의 전통이 되었다. \*







# “모든 것이 안전해”

자넷 토마스

그것은 세인트 토마스 섬 사람들이 일이 잘 되어 가고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저는 그가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디안 피퍼는 카리브 해의 세인트 토마스 섬에 위치한 조그만 말일성도 지부의 한 회원에게서 교회에 참석하라는 초대를 맨 처음 받아들였을 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제럴드 콕스 형제님은 저에게 ‘그냥 가서서 원하는 질문은 무엇이든 해 보세요. 교회에 참석하라고 강요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라고 말씀했습니다.”

디안은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교회에 참석했으나 그 최악의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몇몇 친구들은 교회에 대해 무척 반대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온갖 끔찍한 말들을 들려줬어요. 저는 교회에 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기다렸으나 제가 보게 된 것은 모두 사랑뿐이었어요.” 현재 디안은 세인트 토마스 지부 회원이다.

미국 버진 아일랜드 군도에 속한 세인트 토마스 섬은 구름이 많고 푸른 잎이 무성한 섬으로서 그 가장자리가 반짝이는 흰 모래로 둘러싸여 있다. 바닷물은 따뜻하며 청록색이다. 해변에는 올리브 나무들이 아취형으로 늘어서 있어 그늘을 형성해 준다. 도마뱀의 일종인 야생 이구아나들이 어슬렁거리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붉은 하이비스커스 꽃잎을 찾아 다닌다. 그곳의 기후는 그리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 섬은 많은 사람들이 낙원이라고 부를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낙원은 약간 습하다. 매일 비가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항상 우산을 갖고 다니며 모든 것들이 녹이 습다.

세인트 토마스 섬에는 그곳 특유의 가락과 박자가 있다. 디안과 그녀의 친구들이 무척 좋아하는 칼립소(카리브 해 민요의 일종) 박자는 그곳 어디를 가나 들을 수 있다.





거리에서는 음악을 통해 들려 오고 흥얼거리는 콧노래 속에도 들어 있으며 그들의 말투에도 섞여 있다.

세인트 토마스 섬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아메리카 영어이며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인트 토마스 지부의 젊은이들은 그들끼리만 있을 때에는 대부분의 섬 사람들처럼 사투리를 사용하며 말을 빨리 한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이 안전해”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들이 행복하며 평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안은 교회에 속하게 됨으로써 생애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저는 저의 태도와 생활 방식과 친구를 바꿔야만 했어요. 저는 일요일이면 해변에 가기를 좋아했으며 저속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변화되어야 했어요. 이제 저는 예언자의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라고 디안은 말한다.

세인트 토마스 지부의 디안과 청소년들은 언덕 꼭대기에 서 있는 희고 깨끗한 교회에 모여 그들의 개종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다. 고등학교에서 최고 인기있는 여학생으로 뽑힌 디안이 대부분 이야기를 한다. 디안에게 무엇을 가장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라는 것이다.

다른 청소년들도 모두 그 말에 수긍한다. 말린 잭슨은 친절하게 “그 말이 틀림없어요.”라고 말한다.

디안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말한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기를 좋아해요. 바닷바람을 들이마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해변으로 가서 온 몸에 아름다운 모래를 뿌려요. 저는 우리의 칼럼소 음악을 사랑해요. 그리고 교회 옆으로 차를 몰고 갈 때마다 언덕을 쳐다보며 ‘저기에 내 아름다운 교회가 있지.’라고 말하곤 해요.”

디안은 교회에 대해 좋아하는 점을 계속 이야기한다. “나는 이 의자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유아반을 사랑해요. 카페트가 깔려 있는 교회를 보기는 이곳이 처음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 모임을 갖던 날은 너무도 훌륭했어요. 모든 것이 매우 깨끗하고 아름다웠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함께 만나면 우리는 서로 끌어안아요.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콕스 형제는 디안 이외에도 다른 몇몇 젊은이들에게 교회를 소개해 주었다. “저는 콕스 형제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은 저를 교회로 초대했어요. 결국 저는 교회에 나가기로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행복함을 느꼈지만 콕스 형제님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테레사 마티스의 말이다.

테레사의 언니인 니콜도 동생과 함께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둘 다 침례받았다. 테레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삶의 변화를 가져 오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친구들을













계속해서 사귀는 문제에 대해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친구를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친구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함께 모여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모두를 얻었잖아요.”라고 말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조넬 포스터는 키가 크며 성실한 소년인데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 소년도 콕스 형제로 인해 교회에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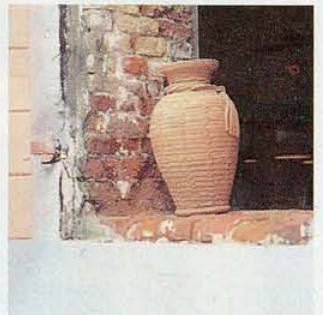
“저도 콕스 형제님이 약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머니는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들어 봐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믿습니다. 제 믿음은 저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리나라 온 것입니다.”

조넬은 바다에서 침례받았다. “그날은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깨끗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옳은 일임을 알았습니다. 교회는 저의 생활에 동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가 한 말에 대해 어떠한 글을 쓴다면 ‘저는 이 교회가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몇몇 청소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교회로 들어왔다. 말린 잭슨 가족은 교회에서 제작한 일련의 텔레비전 광고에 흥미를 느꼈다. “그저 광고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같이 지길 원했어요.”라고 말린은 말했다. 말린과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는 침례받으라는 선교사들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평생 동안 교회 회원으로 지낸 베스 보울즈는 부모와 함께 세인트 토마스 섬으로 이사와서 그 지부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베스는 지부장의 부인인 킨일 자매가 청소년들을 위하여 세미나리를 시작하던 때를 기억한다. 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미나리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던 것에 대해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세인트 토마스 지부의 청소년들에게는 복음에 대해 배우는 것이 삶의 큰 기쁨이 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을 느낀다.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안전하게”해주는 복음의 지식이다. \*









# 다음 15분

로버트 엘 심슨 장로  
명에 총관리 역원

어느 때의 일요일 아침과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았다. 이전에 가졌던 대부분의 집사 정원회 모임과 같은 듯하였다. 그러나 다음 15분 동안 일어난 일은 지난 목요일에 발생한 일로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는 열 두 살 된 소년인 나에게는 특별한 것이었다.

성찬식에서 물몬경에 관하여 말씀을 한 열성적인 선교 책임자에게 자극을 받고 나는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물몬경을 주어야 하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만일 내 친구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그가 물몬경을 받기만 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만일 그가 나를 광신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우정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하지?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일서 3:7)라고 말씀한 니파이의 순종에 대한 강한 간증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모든 회원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 왔다. 그래서 다음날 나는 점심 시간에 그에게 물몬경을 주고 그 책이 참되며 그 책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대에 미대륙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기록이 들어 있으며 또한 성경을 더욱 더 잘 이해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라는 간증을 전해 주었다. 나의 친구는 그 책을 기꺼이 받으며 그것을 읽어 보겠다고 약속했다.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는 젊은 두 친구사이에 오가는 일반적인 대화였다.

이틀 후에 나는 그 책을 되돌려 받게 되었다. “그 책을 벌써 읽었니?”라고 내가 물었다.

“아니, 그 책을 읽지 않을거야.”

“왜 안 읽을거니?”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했다.

“부모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셔. 그리고 어젯밤 일이 있는 후로 나도 부모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방과 후에 만나면 너에게 알려 줄께.”라고 그가 말했다.

방과 후에 그는 나를 데리고 곧바로 공공 도서관으로

가서는 “종교”라고 표시된 장소로 갔다. 그곳은 그가 전날 밤 그의 부모님과 함께 갔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선반에 손을 뻗쳐 모든 책들 중 가장 부피가 큰 세계의 종교라는 제목이 붙은 책을 끄집어 내렸다. 그는 앞 장을 펼치면서 나에게 먼저 저자들의 이름을 보여 주었다. 거기에는 최소한 열 두 명의 저명한 교육자와 신학자 및 기타 학자들의 이름이 있었다. 어느 누구라도 영향을 받을 만한 이름들이었다. 확실히 그 책은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서 세상에 가장 널리 알려진 종교에 관해 충분한 자료에 근거하여 기록한 권위있는 책이었다. 그리고 나서 내 친구는 “물몬이즘”이라는 제목이 붙은 편을 펼쳤다. “물몬경은 가짜다.” “요셉 스미스는 오류에 빠졌으며 환상을 보았다.” “회복 및 물몬경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거짓말이며 속임수이고 남의 것을 모방한 사상으로 만들어졌다.” 등의 이야기를 잠시 읽고 난 뒤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내용을 읽고 나니 슬프고도 비참한 느낌이 들었다.

부모님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나에게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노력하셨던 말인가? 나의 감독님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나에게 진실을 모두 다 말해 주지 않았던 말인가? 나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삶의 기초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가지고 그곳에서 있었다. 나는 몇 개월 전에 나에게 부여된 아론 신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다. 교회에 대한 나의 지식이 단 몇 분 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어쨌든 그것은 선반에서 가장 큰 책이었고 그 저자들의 배경도 그들의 저술을 의심하기에는 너무도 훌륭한 것 같았다.

나는 가슴속 깊이 받은 상처에 대해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그것에 관해 생각해야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는 나의 문제점과 좌절감에 대해 말씀드렸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심지어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그의 적들로부터 성스러운 숲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놀림을 받던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며 징죄받는 일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 : 25)

공공 도서관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낸 지 삼일 후인 일요일에 나는 평상시와 같이 집사 정원회 모임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다음 15분 동안 일어난 일은 나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개회 기도를 드린 후 우리는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인 콜브리지 형제를 소개받았다. 콜브리지 형제는 가족과 함께 방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행 중에 뉴욕주 팔마이라 근처에 있는 교회 유적지와 구모라 언덕과 성스러운 숲을 방문했었다고 말씀했다. 그런 다음 그는 우리에게 성스러운 숲속에서 그의 가족이 겪은 경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영의 명백한 증거가 그들에게 임하여 1820년 이른 봄날 아침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 사실임을 조금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인시켜 주었다.

콜브리지 형제님이 그의 가족이 겪은 경험을 흥분하며 우리에게 말해 줄 때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나의 겸손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성신의 영감이 내 마음속에 홍수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양복을 잘 차려 입은 훌륭한 사업가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채로 서서 어린 집사들에게 마음속 깊이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제 나는 그분이 도움을 급히 필요로 하며, 열심히 기도한 당시 열 두 살인 아론 신권 소유자인 나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콜브리지 형제가 성스러운 숲에서 겪은 광경은 바로 나의 경험이 되었다. 나는 성신의 은사 덕분에 너무나 강한 증거를 받았으므로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내가 실제로 그곳에서 우리가 첫번째 시현이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경험을 직접 목격할 듯이 간증할 수 있으며 물몬경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할 수 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어린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아버지께서 임명하신 신권 지도자와 그 밖의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매우 자주 응답을 보내 주신다.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성신을 확신시켜 주는 영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 나는 아론 신권을 소유한 어린 소년이었던 나에게 찾아와 간증해 주신 그분을 영원히 고맷게 생각할 것이다. \*

---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





# 선물

안토니오 코울리

**먼** 지투성이의 브라질 시골 길을 걸어 내려가는 동안 내 마음은 어렸을 때의 어느 하루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길을 걷고 있는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며 선교사로서 주님께 봉사하고 있는 중이었으나 주위 배경을 보니 사랑하는 아주머니와 어느 아름다운 날 맺은 한 가지 약속이 생각났다.

로실더 아주머니 가족은 큰 농장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는 친척들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으며 로실더 아주머니를 즐겨 방문했다. 시골에서 보내는 하루는 일상 생활의 긴장을 풀 수 있는 날이었으므로 나는 시골 중에서도 특히 로실더 아주머니의 농장 방문하기를 항상 눈이 빠져라 하고 기다렸었다. 아주머니가 생활에서 얻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나는 농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며 즐겼다. 로실더 아주머니는 나에게 물고기를 한 마리 주시며 집으로 가져 가라고 하셨다. 그날 아주머니는 다른 어느 날보다도 나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 주시는 것 같았다. 떠날 체비를 갖추고 나서 나는 아주머니를 끌어안으며 한 가지 약속을 드렸다. 나는 아주머니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에 대해 어떻게 해서라도 보답해 드리

고 싶었다. 나는 진지한 태도로 “언젠가 상파울로에 가서 아주머니에게 큰 선물을 사다 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다.

내가 자라난 후에도 상파울로의 꿈은 결코 식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로실더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슬픔에 잠긴 채로 아주머니에게 한 약속을 생각하며 그 약속을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상파울로로 갔고 그곳에서 두 명의 말일성도 선교사를 만났다. 나는 침례를 받고 나서 선교 사업과 성전 축복을 위해 노력했다. 상파울로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고 나서 나는 아주머니에 대해 생각했다. 내가 아주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나는 로실더 아주머니에게 복음의 축복을 나눠 드리고 싶은 강한 소망을 가졌다. 그래서 아주머니를 위해서 성전 의식이 행해지도록 모든 준비를 하였다.

로실더 아주머니가 비록 이 지상 생활에서는 그 “선물”을 받지 못하였지만 더 큰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셨다고 나는 생각한다. \*



# 전세계 성도들의 소식

## 필리핀 부부가 선교사로 부름받음

필리핀, 마닐라—첫 필리핀 부부 선교사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현재 봉사 중이다.

카르밀리노 카윗 장로와 자매는 필리핀 다바오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라몬 마리아노 장로와 자매는 마닐라 성전에서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카윗 장로는 올해 66세로, 선교사로 부름받기 전 카디즈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으로 있었다. 그와 아내인 알리시아 림 자매는 공무원이었는데 퇴직하였다.

34세인 마리아노 장로와 부인 아나벨리 아실로 자매는 퀘존 5와드 회원이며, 부름받을 당시 직업 연예인이었다.

## 스웨덴의 음악회가 방송됨

스웨덴 베스트라닝—매주 일요일 저녁 스웨덴 성전 부지에 있는 베스트라닝 예배당에는 100내지 150명의 청중들이 지역 교회 성도들이 주최하는 음악회에 참석한다. 이 프로그램은 성인 및 아동 합창과 안식일에 알맞은 독주자의 연주 및 오페라와 고전 음악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스웨덴 공보 책임자인 웨너런드 형제는 말한다.

웨너런드 형제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음악회는 이곳 전 지역에 걸쳐서 커다란 문화 행사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역 관리들도 몇 차례 공연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 신문사와 라디오 방송 기관들은 그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 음악회는 9월부터 녹음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월요일 아침마다 라디오로 방송되고 있다.

## 코트디부아르의 초등협회

코트디부아르, 아비잔—아비잔에서는 세 명의 비회원을 포함한 열 네 명의 초등협회 어린이들이 성찬식 발표를 하였다.

철리 아놀드 자매는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아이들 대개가 처음 갖는 경험이었습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인 티그 형제와 세 자녀인 크리스탈, 스펜서, 사라와 함께 아비잔에 살고 있다. “이곳은 약 78명의 회원이 있는 작은 지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이 프로그램의 사분의 삼을 차지했었습니다.”라고 아놀드 자매가 말했다.

이 발표회는 코트디부아르의 공용어인 프랑스어로 행해졌다. 그들에게는 프랑스어로 된 어린이 성찬식 발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아놀드 부부와 그 지역 회원인 판구 오키토 형제가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하였다. 테리 브로드헤드 형제는 어린이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자주 부르는 “물몬경 이야기”라는 노래의 두 절을 추가로 번역했다.

## 선교 사업을 위한 희생

브라질 상파울로—브라질의 상파울로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의 시

엘모 터너 원장은 지역 선교사들의 숫자가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터너 원장과 부인 로이스 자매에 따르면 선교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기 위해 커다란 희생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 한 형제는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봉급을 120퍼센트 인상해 주고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했으며 또 한 형제는 선교사 기금을 마련키 위해 자신이 사업에서 사용하던 트럭을 처분하였다. 변호사인 한 자매는 선교사 부름을 받기 위하여 바쁜 법조계를 떠나 왔다.

터너 원장과 자매는 선교사들이 훈련원을 떠날 때 구도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물몬경을 한 권씩 선물한다. 터너 원장은 그 물몬경 대부분이 가족간 물몬경 전하기 프로그램에 의해 기증된 것이라고 말한다.

## 축구 선수가 선교 사업을 선택함

브라질 상파울로—호세 에반드로 폰탈리 형제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결심한 때는 브라질 대부분의 소년들이 갖고 있는 직업 축구 선수의 꿈을 거의 실현시킬 수 있는 때였다.

호세 형제가 브라질의 캄베라에서 마이너 리그 축구단에서 활약하고 있었을 때 팀 트레이너인 알시테스 도스 산토스 공갈베스 형제가 그를 교회에 소개하였다. 공갈베스 형제는 그 팀 선수들과 함께 경전과 가족간의 관계 및



그와 관련 있는 화제들에 대해 토론하곤 했는데 나중에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다.

호세는 물론경을 읽기 시작했으며 곧 이어 간증을 갖게 되었다. 캄보리아에는 우리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참석해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상파울로까지 가야했다.

그는 바우라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동안 그 팀의 최고 선수로 지목되었으며, 직업 팀인 레가타스도 플라멩고 팀으로부터 입단 제의를 받았다. 스물한 살에 직업 선수가 되기 위하여 예비 선수로 생활한 지 수개월 후, 그는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의 계약 경력이 취하될 수도 있다는 클럽 소유주와 코치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호세는 자신의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의 결심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폰탈티 장로는 “저는 상파울로 남 선교부에서 봉사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라고 말한다.

## 봉사와 사랑

페인 바다로나—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근교에 있는 바다로나의 바다로나 워드 소속 젊은 여성들을 이야기할 때면 봉사와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다.

대부분 전화가 없고 교회로부터 48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자매들은 모든 자매들이 모든 활동에 참여하도록 책임을 지고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 만일 한 명의 자매라도 결석하였을 때에는 다른 자매들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확인을 한다.

그들의 봉사는 교회 회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자매들은 장애인(성인, 아동 모두) 가정을 돕기로 합의했다. 열 다섯 살의 사라 로페즈 가리도는 다른 소녀들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대신 전한다.

“전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라서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내 그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의 시간을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을 받았습시다.”

복음이 이 젊은 자매들의 생활을 축복해 주었으며 이제 그들은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해 주고 있다.

### 편집자 노트

여러분의 지역에서 성도들이나 교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관한 특색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TO: Around the World, (The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워드와 스테이크 뿐만 아니라 이야기 속의 인명까지도 완전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성함과 주소도 적어 주십시오. \*







# 벽장 선반 위의 책

클리포드 이 코울맨

“이 책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나는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그것은 악마에게서 온 것일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일까?”

몇 년 전에 텍사스주 마살에 있는 나에게 두 명의  
말일성도 선교사가 찾아왔다. 나는 정중하게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지 판단할 만큼 그것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고 그들이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나 않을까 몹시  
두려웠다. 그들은 나에게 몰몬경을 한 권 주고 갔다. 그것을  
펴 보았을 때 나는 리하이, 니파이, 엘마와 같이 전에 전혀  
들어본 일이 없는 이름들을 보고는 즉시 책을 덮어서 벽장에  
있는 선반에 얹어 놓고는 그것에 대해 잊어버렸다.

여러 해가 흘러가는 동안 나는 종교나 영적인 일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참으로 신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했다. 나는  
알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심했으며 그 일을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신약전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신교도 교회에  
참석했다. 나는 그곳에서 배운 것이 마음이 들었으나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는 말씀을 읽었으나  
여러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들은 각기 다른  
자기의 믿음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모두 옳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내가 이러한  
생각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무엇을  
믿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그러한 생각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경전에서 답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답도 찾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었다. 성경은 왜 어느 교회가 옳은지 말해 주지 않는  
것일까? 나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백과사전을 뒤져

보았다. 만일 다른 교회들이 조직된 때를 알게 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실망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몇 년 전에 벽장 선반에 얹어 놓았던  
책을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흥미를  
느꼈다. 너무나 흥미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무실에서  
친구들에게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 또는 영화를 볼 때에도 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나는 이 책이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아니면  
악마에게서 온 것인가를 알아야 할 때가 되어 그에 대해  
기도해 보기로 했으나 잘못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러다가 나는 모로나이서 10장 4~5절에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은 것에 대해 기도해 보라고 하는 성구를 읽게 되었다.  
그래도 나는 그 답이 사탄으로부터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그러한 걱정을 털어 주는 성경 구절이 생각났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마태복음 7:9~10)  
나는 후에 내가 받은 응답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

엘마 동안 읽고 공부한 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목사님이  
이 책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 않을까?” 나는 그가 그 책에  
대해 전혀 언급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것에 관해 모르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클리포드,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 못하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를 드리고 일어나자 그는 “자  
이제는 됐요.”라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기도하기 전이나 별다른 게 없는데요.”라고 내가 말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 평이우 평상 흥행

구원을 받게 된다는 성구를 믿지 않으십니까?”라고 그가 물었다.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나는 말했다. 나는 미혹한 느낌으로 그곳을 떠났다. 나는 물론경에 대해 내가 느끼고 있는 바를 그에게 이해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계속해서 읽고 공부했다. 어떤 때는 중단해야 할 때도 있었다. 그 당시 내가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은 설명할 수 없다. 나는 이 책이 참된 것인지 알아야 했다. 나는 성경을 읽고 다시 물론경을 읽으며 서로 비교하며 연구하곤 했다.

나는 목사에게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토론하다가 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클리포드, 그들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나는 다시 한 번 실망하여 그곳을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나에게 물론경을 전해 준 선교사가 한 말이 생각났다. 그 선교사는 나에게 그 지역에 개인 사업을 하는 말일성도 지부장이 있는데 질문이 있을 때는 그를 찾아가보라고 당부했다. 나는 멀리 콘리 지부장을 찾아가 몇 가지 질문을 했으며 그의 대답에 만족을 얻었다.

후에 내가 나가던 교회의 회원 몇 명이 찾아와 내가 그릇된 곳으로 인도되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다음날은 목사님과 그의 부인이 찾아왔다. 그러나 내가 말라기 4장 5~6절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화를 내며 내가 물론에 의해 세뇌당했으며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니파이삼서 14장 13~14절을 읽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어두움 속에서 홀로, 나는 그 좁은 경전의 문에 서서 들어가기로 두려워하며 망설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길을 발견했음을 깨달았다. 주님은 그날 밤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고요하고 조그만 음성으로 “이제 어찌 하려느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콘리 지부장을 다시 찾아가 침례를 받고 싶다고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었다.

지부장만이 침례를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일주일 후에 돌아오기로 하고 집을 떠났다.

2 주 동안 사탄은 나의 길에 또 다른 장애물을 놓았다. 더욱더 의심이 생긴 것이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의심과 더불어 3일간을 고심한 뒤에 나는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이 쓴 **회복된 진리**를 읽기 시작했다. 그 책은 콘리 지부장이 준 것이다. 그 책을 읽는 동안 물론경의 참됨을 증거했던 그 영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임을 증거해 주었다.

콘리 지부장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침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1970년 10월 19일 침례를 받기 위해 텍사스주 길머로 가면서 나는 그에게 물었다. “내가 경전에서 읽은 것, 즉 침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침례를 받으러 가는 동안 계속 울었다. 나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침례를 받고 나서 열 배는 더 강하게 느꼈다.

나는 여러 번 이렇게 생각했다. “홀륭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데 나는 어째서 그것을 알고 있는가?” 그때마다 마음에는 항상 이런 성구가 떠오른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누가복음 11 : 9)

침례를 받은 지 몇 주 후에 나는 다시 한 번 성신의 증거를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세 시에 나는 눈물을 흘리며 침대에 앉아 있었다. 성신은 물론경과 교회의 참됨에 대해 너무나도 강한 간증을 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이제는 충분합니다. 그것이 참됨을 압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느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물론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나를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 계신 예언자가 인도하는 그의 교회로 인도해 주었다. \*

클리포드 이 코울맨은 오메사 텍사스 스테이크, 미드랜드 제3와드의 회원이다.





“방주를 떠나는 노아”, 해리 앤더스 작

홍수로 인해 세상을 뒤덮었던 물이 줄어들어 생물이 살 수 있는 마른 땅이 드러나자 노아와 그의 가족 및 온갖 짐승들은 방주를 떠나 지상을 가득 채웠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살아 있는 생명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성약의 표시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제단을 쌓고 주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창세기 8~9장 참조)





**세**인트 토마스섬의 청소년들은 카리브에  
위치한 그들의 독특한 섬 낙원을 즐기고  
있다. 그들은 서로 도우며 복음을 나누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모든 것이 안전해" 34페이지 참조)